

# 목소리 키우는 비명계... 이재명은 '통합 행보'

### 김경수·임종석 등 연일 '李 일극체제' 비판하며 세력화 움직임 李, 文 정부 인사들 잇달아 기용...비명계와 소통 방안도 검토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비명(비이재명)계 목소리를 점차 키우고 세력화까지 도모하면서 당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민주당에 복당한 지난 7일 부산을 찾아 정권 교체를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통합 정신이 필요하다는 "이 상태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며 이재명 대표를 지적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역시 같은 날 광주에서 "민주당의 전통적인 힘은 다양성과 포용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총리는 9일까지 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을 돌며 청년과 지역 경제인 등을 만났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 대표의 중도층 공략을 위한 '우클릭' 행보에 대해 최근 "우리(민주당)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은 정체성을 분명히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이재명이 아니어도 정권교체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면서 "지지층만 보고 간다는 인식은 (여권이) 태극기 집회와 보수 유튜브를 국민 여론으로 착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지 않다"고 이 대표와 그를 따르는 세력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같은 비명계 '잠룡'으로 꼽히는 인사들의 '이재명 일극체제' 비판과 함께 비명계의 세력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가장 먼저 비명계 총선 낙선·낙전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모임 '초일회'가 나서 김 지사와 김 전 지사를 초청해 강연을 들을 계획이다. 이 모임 간사인 양기대 의원은 비명계 주자들 간 연대의 틀을 만들기 위해 오는 18일 '희망과 대안 포럼'을 출범 시킬 예정이다.

친문(친문재인)계 출신인 고민정 의원이 이 대표 비판에 가세했다. 고 의원은 이 대표 비판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망하는 길로 가는 민주당의 모습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다"고 목소리를 냈다.

비명계의 세력화와 움직임이 점차 거세지고 뚜렷해지자 이 대표는 '통합과 포용'을 강조하며 비명계를 끌어안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통합 행보를 하겠다"고 말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들을 기용하며 계파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당 대표 특보단 외교안보보좌관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김현중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을 기용했고, 문재인 정부 초대 주미대사를 지낸 조운제 전 금융통화위원과 오찬 회동을 했다.

친문계 박광온 전 원내대표의 싱크탱크 '일곱 번째 나라 LAB' 소속인 '경제통' 홍성국 전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발탁했다.

이 대표는 자신에게 날을 세우는 비명계 주자들과 만나 소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당연히 비명계 인사들을 만나야 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잡힌 일정은 아직 없다"며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의 행보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여권 후보를 상대로 쉽지 않은 싸움을 펼쳐야 한다는 인식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더구나 '단일대오'가 흐트러지면 야권 표 결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판단 등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질문이 세상을 바꿉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소통플랫폼 '모두의질문Q'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힘 '조기대선' 선 긋지만 걸음 빨라진 주자들

### 오세훈, 이번 주 개헌 토론회...홍준표, 보수 지지층 결집 주력 한동훈, 이달 중 정치 재개 전망...유승민·김문수 행보도 주목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측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정치인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오 시장은 오는 12일 국회에서 지방분권을 주제로 개헌 토론회를 연다. 오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회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시장은 특히 이번 토론회를 앞두고 당내 의원들에게 초청장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내에선 이를 두고 오 시장이 사실상 대선후보 경선을 염두에 두고 세력화에 시동을 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홍 시장은 일찌감치 차기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상태다. 최근에는 소셜미디어와 언론 인터뷰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논란 등을 공격하면서 보수성향 지지자 결집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홍 시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선에서) 이 대표를 잡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며 자신이 여권의 유일한 '이재명 대항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 전 대표는 설 연휴를 전후로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은 물론, 여야 정치 원로들과 잇따라 만나고 있다. 이달 중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것

으로 전망된다. 친한계 인사들은 최근 '언더73' (1973년생 이하 정치인) 모임을 결성하고 공식적인 활동에 나서면서 한 전 대표를 지원 사격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달 22일 "나는 늘 대선에 도전할 꿈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라며 대선 출마를 시사한 상태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유 전 의원은 '쇄신 이미지'와 '중도 확장성'을 앞세우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여권 주자 중 선두로 나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경우 대권 도전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무위원인 데다, 김 장관에 대한 지지세가 주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론에 터를 잡고 있다는 점이 신중할 태도의 배경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의 지지세가 이어지면 김 장관이 출마를 고려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적 성향과 입지가 다르지만, 이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개헌론'이다. 윤 대통령 탄핵 국면을 계기로 개헌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개헌에 집중하고 있는 이 대표와 대비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오 시장은 정부에는 의회 해산권을, 의회에는 내각 불신임권을 주는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개헌을 주장하는 동시에, 이를 위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여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차기 대통령이 제7공화국을 준비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 상·하원 양원제 등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개헌 국민투표를 2028년 총선 때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유 전 의원은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을 둘 다 낮춰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들의 바빠진 움직임에도 당은 공식적으로 조기 대선에 거리를 두고 있다. 조기 대선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인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조기 대선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여권 주자들 역시 지지층의 정서를 의식해 당분간 대권 행보를 드러내놓고 하기보다는 정책 여젠다를 제시하거나 물밑에서 세력화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당 입장에서 당장 윤 동장을 그려주지는 못해도 선수들이 뛰어보겠다는 걸 막아낼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민주당 집권 청사진' 내놓을까

### 오늘 국회서 교섭단체대표연설...균형발전 정책 제안·추경 강조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성장 전략을 주제로 교섭단체대표 연설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린 상황에서 야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 대표가 이번 연설을 통해 자신이 구상한 집권 청사진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9일 "이 대표의 연설 주제는 '회복과 성장'이 될 것"이라며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위해 신성장 동력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바이오, K컬처를 비롯한 콘텐츠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및 육성을 촉구할 것"이라며 "기후 위기를 한반도의 기회로 삼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안팎에서는 이처럼 민생과 경제, 특히 성장 전략에 연설 초점을 맞춘 것을 두고 최근 이 대표

가 속도를 내는 중도 공략·외연 확장 행보와 일맥상통하는 모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전망으로는 최근 당내에서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충돌 조짐이 노출된 만큼 당내 통합을 위한 메시지도 담길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입법 활동을 하는 교섭단체의 대표 자격으로서 연설하는 것인 만큼 당내 현안을 언급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신 국민통합의 중요성은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다른 관계자는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주권자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건설에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연설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문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